

동포 발라드

몇 세기가 지나고서야 들것처럼 땅 근처를 맴돌며

전쟁의 여파를 찾는 구름을 기억하라.

영근 보리를 제외하고는

들어올릴 것은 무엇도 남지 않았다.

병사들이 쓰러졌던 곳에는

사차선의 도로가 지나고

빵집은 팔의 전통을 풍기고 있다.

누군가는 예전엔 죽음이 훨씬 단순했다 말할지 모른다.

혹은 갈대 바구니를 머리에 지고 비틀대던 여인들이

훨씬 단순했다고. 아이들은 생략부호처럼, 때로는

소총보다도 더 키가 작은 채로, 여기저기서 자라났다.

하늘에서 단도가 쏟아졌더라고, 천 년 후에

고담으로 둔갑한 역사는 말할지 모른다,

고비늪은 여인이 손자에게 빵 하나 하나를

향의 벽에 참수당한 금빛 부처의 윤기로

마무리하는 법을 가르칠 때에.

연기의 일부는 도로처럼 성한 한 몸으로 떠난다.

죽은 이들은 종이 문을 통해 사원을 평화로이 떠난다.

그녀의 손자를 기억하라, 끝없이 펼쳐진

갈대와 보리와 콩 밭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그는 바람을 모면하려는 듯이 손을 들어올린다,

땅을 휩쓸어 암술의 속눈썹을 가진

땅의 무수한 눈을 깜박이게 하는 바람을.

태양에게는 그의 갈증을 지적하는 손가락이 있다.